

7기 맞은 인협 인쇄전문 인력양성 교육사업

5개 교육교재 개발 · 400여명 인력 배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09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쇄전문 인력양성 교육’ 사업이 2012년 11월 현재 4년째로 7기를 맞았다. ‘인력양성 교육’ 사업을 통해 그동안 배출한 교육생은 몇 명인지, 교육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2009년부터 400여명 인쇄전문 인력 배출

대한인쇄문화협회가 2009년 11월 시작한 ‘인력양성 교육사업’은 업계발전에 큰 봉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습득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인쇄인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매년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55명을 시작으로 2010년 108명, 2011년 120명, 2012년 98명이 수강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봉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관련교재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되고 있다. 교육생은 선착순 마감인데, 일부 과목의 경우 교육 공고를 내고 삼일 안에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교육관은 서울 마포구 인쇄문화회관 내에 1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인디자인 실무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 3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PPT 시설과 음향장비, 냉난방 시설도 갖췄다. 2011년 인쇄문화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5층에 있는 각종 인쇄기 모형, 납활자 및 보관함, 수동활자주조기 등 인쇄문화역사관의 일부 전시물을 교육관으로 이전, 전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속활자 제작 디오라마와 판넬 등을 전시하고 있어 현대와 고대의 인쇄문화를 조화시킨 교육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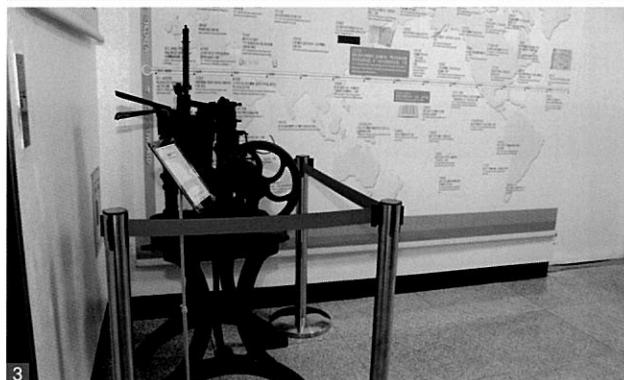
2009년 교육사업 첫발… 3개 과목 교재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인력양성 교육사업’은 2009년 11월 10일 하반기교육으로 시작됐다. 강사는 인쇄물 무역실무과정에는 김준옥 청아문화사 팀장과 배성민 (주)글로벌프린트팩 대표이사, 인디자인 편집실무에는 김호문 무른모 대표, 디지털 인쇄 실무에는 이문학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이 맡았다. 2009년 인력양성 교육에는 총 55명이 수강했다.

2010년 인쇄물 편집교정 실무 교재 추가 개발

2010년에는 디지털 인쇄실무, 인쇄물 무역실무, 인디자인 편집실무에 이어 인쇄물 편집교정 실무 교재 1종이 추가로 개발됐다. 2010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2개 과목의 교육이 실시됐다. 상반기에는 인디자인 편집실무와 디지털 인쇄 실무, 하반기에는 인쇄물 무역실무와 인쇄물 편집 교정 실무 등이 교육됐다.

강사는 인디자인 편집실무에는 김호문 무른모 대표, 디지털 인쇄실무에는 이문학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인쇄용 편집교정 실무에는 금창연 동원대학교 광고편집과 교수, 인쇄물 무역실무에는 김준옥 청아문화사 팀장과 배성민 (주)글로



1~3. 인쇄문화회관내에 조성된 교육관안팎에 전시되어 있는 고서, 인쇄모형, 수동 활자주조기

밸프린트팩 대표이사 등이 맡았다. 2010년 인력양성 교육에는 총 108명이 수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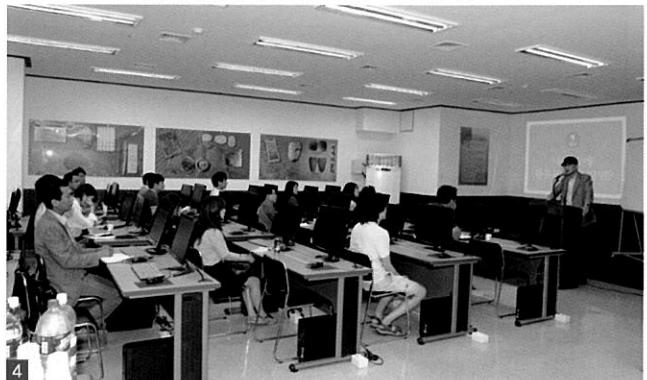
2011년 평판오프셋 인쇄기 운용기술 교재 추가 개발

2011년에는 디지털 인쇄실무, 인쇄물 무역실무, 인디자인 편집실무, 인쇄물 편집교정 실무에 이어 품질향상을 위한 평판오프셋 인쇄기 운용기술 교재 1종이 추가로 개발됐다.

2011년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2개 과목의 교육이 실시됐다. 상반기에는 인디자인 편집실무와 인쇄물 무역실무, 하반기에는 인쇄물 편집 교정실무와 디지털 인쇄실무 등이 교육됐다.

강사는 인디자인 편집실무에는 김명인 Adobe 국제공인강사, 인쇄물 무역실무에는 이국홍 (주)아시아프린팅 대표이사와 배성민 (주)글로벌프린트팩 대표이사, 인쇄용 편집 교정실무에는 금창연 동원대학교 광고편집과 교수, 디지털 인쇄실무에는 김홍석 한국후지제록스 PS사업부장 등이 맡았다. 2011년 인력양성 교육에는 총 120명이 수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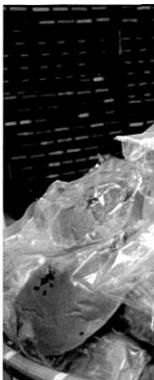
● 포커스 인쇄전문인력 양성과정



4. 2012 상반기 인쇄용 편집 교정실무 교육장면



5. 2012 상반기 인쇄물 무역실무 수료식



6. 교육생들을 위해 준비된 간식 7. 인쇄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사용된 교재들

2012년 98명 수강 ... 12월 6일까지 진행

2012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2개 과목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상반기에는 인쇄용 편집 교정 실무와 인쇄물 무역실무, 하반기에는 인디자인 편집실무, 디지털 인쇄실무 등이 교육됐다. 하반기 교육은 11월 14일에 시작해 12월 6일에 마무리된다.

강사는 인쇄용 편집교정 실무에는 금창연 동원대학교 광고편집과 교수, 인쇄물 무역실무 과정은 이국홍 (주)아시아프린팅 대표이사와 배성민 (주)글로벌프린트팩 대표이사, 인디자인 편집실무 과정은 김명인 Adobe 국제공인강사, 디지털 인쇄실무 과정은 김홍석 한국후지제록스 PS사업부장 등이 맡았다. 2012년 인력양성 교육에는 상반기 48명, 하반기 50명 등 총 98명이 수강했다.



〈미니인터뷰〉 김명인 Adobe 국제공인강사

“학생들 열의 대단... 인터넷 연결 필요”



Q 어도비 국제공인강사인데.

어도비 국제공인강사는 한국어도비가 아닌 미국 본사인 어도비사에서 공인하는 것으로, 어도비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세계

어디에서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나 역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어도비를 강의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 전 국제공인강사만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미리 정보를 얻어 각자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수 및 관련 실무자와 일반인들에게 강습한다. 현재 서울시 데이터센터, 한국교육기술대학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Q 지난해에도 인력양성 교육사업을 진행했다. 강의 시 교육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교육생들은 인쇄 재직자기 때문에 7시 강습을 듣기 위해 6시 퇴근 후 바로 교육장으로 달려온다. 열심히 배우려는 열의가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 회사일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돼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오기도 한다.

Q 교육과정이 한달 4번에 걸쳐 진행되는데.

처음에도 4번의 강의로 어떻게 교육을 하나 걱정했는데, 회사에서 직접 인디자인을 작업하거나 어깨너머라도 조금은 알고 오는 학생들이 이어서 빠른 진도에도 학생들이 잘 따라온다. 다만 3~4명이 팀을 이뤄 책을 만들어보거나 세계적인 디지털매거진의 흐름을 알려주는 등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Q 교육활성화를 위해 보강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출판디자인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디자이너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디자인과 새로운 기술들을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CS6는 안정된 디지털매거진을 제공하고 있어 본인들이 만든 잡지를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인터넷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인터넷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



인쇄전문 인력양성 위해 5종 교재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인력양성 교육사업’의 첫 걸음은 2009년 1월 교재개발에서부터 시작됐다. 약 10개월 간의 노력 끝에 디지털 인쇄실무, 인쇄물 무역실무, 인디자인 편집실무 등 3개 교재가 개발됐다. 이후 2010년 인쇄물 편집교정 실무 교재가, 2011년에는 품질향상을 위한 평판오프셋 인쇄기 운용기술 교재가 개발되는 등 총 5개의 교재가 개발되었다. 이들 교재는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인쇄물 무역실무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인쇄물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수출시장을 개척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규모가 큰 인쇄업체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던 수출시장에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과감히 도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국내외 인쇄물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수출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실무자들이 인쇄물 수출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 배성민 글로벌프린트팩 대표이사, 박웅규 (주)타라티피에스 해외영업팀장, 김춘옥 청아문화사 해외영업팀장 등이다.



인디자인 편집실무

컴퓨터 관련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조판·편집·디자인 작업환경은 1990년대 중반에 완성된 시스템을 아직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책에서는 훨씬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IBM 호환 PC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에서 어도비 시스템의



페이지 레이아웃 소프트웨어인 인디자인CS4 한글판을 활용하여 인쇄용 그래픽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저자는 김호문 무른모 대표,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 이사 등이다.

디지털 인쇄실무

정보통신의 발전은 인쇄기술에도 큰 변혁을 몰고 왔다.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인쇄방식이 오프셋에 이어 이제 디지털인쇄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디지털 인쇄는 짧은 시간에 소량 다품종 인쇄를 실현하는데 적격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인쇄산업은 디지털인쇄가 급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인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근무자들이 디지털 인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이문학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오세웅 신구대학 그래픽아츠미디어과 교수 등이다.



편집교정이론&실무

출판의 시작은 편집, 편집의 시작은 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출판인쇄 산업현장에서 편집교정은 책이라는 저작물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내적·외적으로 확인하고 검정하는 출판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다. 뉴미디어가 출현하면서 출판물의 형태와 콘텐츠 또한 다양해졌지만 편집교정의 과정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은 채 질이 저하된 출판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편집교정을 제대로 익히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는 금창연 동원대학 광고편집과 교수와 공주영 글숲실장 등이다.



품질향상을 위한 평판오프셋 인쇄기 운용기술

인쇄물의 망점모양이나 화선의 미세한 원소들의 모양을 관찰하여 인쇄물을 평가 또는 판단하는 방법을 미시각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인쇄물의 객관적 평가기준은 주로 미시각적인 대상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인 평가방법의 주요 평가요인은 계조재현성, 색재현성, 망점재현성, 인쇄균일성, 선예성, 콘트라스트, 광택, 뒤틀림, 내구성, 공해성 등이다. 저자는 박범석 한국하이델베르그(주) 전무 이사와 유건룡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 등이다.

